

1952~1955년, 한국후방관구사령부 (KComZ)의 창설과 해체

이 동 원*

1. 서론
2.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창설 배경
3.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편제와 임무
4.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활동과 해체
5. 결론

1. 서론

6·25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전(停戰)’으로 전투행위는 중지되었지만 정전협정 제4조의 건의처럼 “쌍방의 한층 더 고위의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¹⁾ 특히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의 고조, 이로 인한 ‘남남갈등’의 심화 양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1) 김정건, 『국제조약집』, 박영사, 1984, 354쪽.

60여 년 동안 위태롭게 지켜온 불안정한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쟁의 기원에 대한 오랜 이데올로기전 양상의 논쟁에서 벗어나 당대의 한국인들이 전쟁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결과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기억과 인식이라는 담론적 차원, 민간 원조 및 민간인 피해 등의 사회사적 차원, 구술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이러한 연구의 다양성은 6·25전쟁 연구가 겪어온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6·25전쟁에 대한 객관적, 역사주의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기인 1952년 7월에 창설되어 1955년 6월에 해체된 한국 후방관구사령부(Korean Communications Zone, KComZ)³⁾의 창설에서 해체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는 큰 틀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6·25전쟁의 주요

2)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역사문제연구소, 포츠담현대사연구센터 공동기획,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역사비평사, 2010;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서중석 외,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서중석 외, 『전쟁 속의 또다른 전쟁』, 선인, 2011;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선인, 201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 철수와 영희, 2012;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김태우, 『폭격』, 창비, 2013.

3) KComZ는 ‘한국병참관구사령부’, ‘한국후방기지사령부’, ‘한국후방관구사령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1976년 발행된 한 군사영어사전은 ‘Communications Zone(ComZ)’을 “병참지대(전투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전구의 후방지대)”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군사영어편찬위원회 편, 『군사영어사전』, 병학사, 1976, 175쪽). ComZ의 기본 역할이 병참 임무임을 감안하면 KComZ를 ‘한국병참관구사령부’로 부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본고에서는 KComZ가 병참 임무뿐만 아니라 포로관리, 민사지원 등 후방의 다양한 문제들을 총괄했음을 감안하여 ‘한국후방관구사령부’라고 지칭하였다.

전투는 전쟁발발 후 1년 안에, 대부분이 전선(戰線)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6·25전쟁 연구는 전방에서 벌어진 일들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전선이 고착되면서 지루한 고지전이 계속되었고, 전방지역과 후방지역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후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후방에서는 더 많은 한국인들이 전쟁과 일상을 동시에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후방 지역에서는 피난민이 관리되었고 전쟁 구호가 진행되었으며 비록 피난 정부이기도 했지만 ‘정치’가 작동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후방이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포로수용소에서는 공산포로와 반공포로 간의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후방’지역에 대한 연구는 유엔군과 한국군, 중국군과 북한군의 전투를 중심으로 전개된 전쟁의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6·25전쟁의 역사상을 구체적이고 폭넓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극동미육군(USAFFE) 산하의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6·25전쟁 ‘후방’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후방관구사령부는 1952년 7월, 주한미8군(EUSAK)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별개의 부대로 창설되어 한국의 후방지역을 관할 하며 포로 관리, 민간 원조, 전투부대의 병참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후방관구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주한미8군(EUSAK)은 전방에서의 전투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6·25전쟁기 활동 기간은 1년 정도에 그쳤지만 1955년 6월 해체될 때까지 3년간 한반도에 머물며 한국 육군 제2군사령부 창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에 대한 개별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창설 배경과 편제 및 임무, 활동과 해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1차적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후반기 유엔군·극동군(UNC·FEC)이 후방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고자 했는지, 미국이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의 군사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병참 지원, 민사 활동, 포로 관리, 빨치산 토벌, 한국 정부와의 관계 등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다양한 활동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후방지역에서 전쟁을 겪은 한국인들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또 다른 차원의 연구사적 의의를 가질 것이므로 별도의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주요 활용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RG554,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유엔군사령부 문서(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1-1957)와 RG550, 태평양 미 육군 문서(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1944-1972)에 속해 있는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월간, 분기별 지휘보고서와 역사보고서류들이다. 이 보고서들은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창설에서 해체까지의 편제, 역할, 활동 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미 국무부에서 간행한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와 이 시기 국내 신문들도 시대상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한국군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 등의 회고록도 참고하였다.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간된 6·25전쟁 병참(Logistics) 관련 저술들도 2차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2.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창설 배경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는 1952년 7월 10일, 미 극동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한 클라크 장군의 미 극동군사령부 일반명령 65호에 의해 창설되었다.⁴⁾ KComZ는 대략 북위 37도선 부근을 경계로 소위 ‘후방’을 담당하게 되었다. 백선엽은 이를 “남한 지역의 2/3에 해당하며, 서쪽의 평택에서 동해안의 삼척에 이르는 경계선 이남 지역”이라고 회고했다.⁵⁾

표면적으로 KComZ는 당시 미8군이 수행하던 병참지원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부대였다. 태평양 미 육군 군사실(軍史室)이 작성한 KComZ 부대약사(Unit History)에서는 KComZ의 창설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25전쟁의 첫 두 해 동안 유엔군 사령관은 전쟁의 수행뿐만 아니라 전투 작전에서 현대야전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자 공급을 책임져야 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이 두 임무를 모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중략) 결국 한국 내 유엔군의 병참지원을 특별히 담당할 독립된 사령부가 창설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4) NARA, RG 550 Entry (A1)-2,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Files, Box94, Hq Korean Communications Zone Command Report Part I Narrative Summary, August 1952(이하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5) Paik Sun Yup, *From Pusan to Panmunjom*(Washington D.C. : Potomac Books, 1992), p.205.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KComZ가 미 극동군사령부의 주요 예하부대이자 미8군의 측위부대로서 1952년 7월 10일에 설립되었다.”⁶⁾

위의 설명대로 전투와 병참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KComZ가 창설되었다는 것은 후대에도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 되었다.⁷⁾ 그러나 “전쟁이 확대”되었다거나 병참업무의 부담이 늘어나서 KComZ가 독립적인 부대로 창설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6·25전쟁의 주요 전투는 전쟁 개시 1년 안에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1951년 6월에는 휴전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 예비회담이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후의 전선은 38도선 이북으로 형성된 “캔자스-와이오밍”선에서 형성되었으며 진지전, 혹은 고지전의 형태를 띠었다.⁸⁾ 따라서 왜 하필 1952년 7월 10일에 KComZ가 창설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1952년 8월분 KComZ 지휘보고서에 나타난 다음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선 뒤의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다. 전쟁포로, 병참지원, 민사원조라는 3대 문제점의 조합이 점차 심각한 정도로 커졌던 것이다. 미 8군 사령관은 전선에서 전술적인 상황을 지휘하는 동시에 남한 전역에서 병참과 행정 작전을 관리하고자 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두 필의 말에 올라타고자 하는 것과 같았다.”⁹⁾

6) NARA, RG 550 Entry (A1)-1,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Files, Box 339, History of the Korean Communications Zone.(이하 RG 550, Entry (A1)-1, Box 339, KComZ History)

7)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A Research Approach*(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7); Donald W. Boose, Jr., *US Army Forces in the Korean War 1950-53(Battle Orders)* (Osperly Publishing, 2005)

8)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32~36쪽.

9)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이러한 설명은 KComZ 창설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 준다. 병참지원 문제뿐 아니라 전쟁포로와 민사원조 문제가 당시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후방의 문제들이 더 심각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쟁포로 문제는 KComZ 창설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포로문제는 휴전회담을 지연시킨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이 때문에 정전협정은 휴전회담이 시작된 지 2년이 넘는 1953년 7월 27일에야 체결될 수 있었다. 로즈메리 풋(Rosemary Foot)이 ‘승리의 대체물(A Substitute for Victory)’라고 규정한 이데올로기전, 심리전으로의 전환이 전쟁을 지루한 ‘진지전’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¹⁰⁾

1951년 가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13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과 약 2만 명의 중국군이 수용되어 있었다. 포로협상에 의해 송환희망포로를 선별하기 위한 포로조사 작업이 진행되면서 1952년 2월 18일, 소위 ‘2월 폭동’으로 217명의 포로와 39명의 군인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수용소 내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미 8군사령관이 돛드(Francis T. Dodd) 준장을 거제도 포로수용소장에 임명했지만 설상가상으로 그는 5월 7일 포로와의 면담과정에서 포로들에게 납치, 억류되고 말았다. 5월 10일 새로 수용소장에 부임한 콜슨(Charles Colson) 장군이 포로들에게 서약서를 써주고 돛드 장군이 석방될 수 있었지만 이는 휴전회담 과정에서 공산 측에 중요한 선전 수단이 되었다.¹¹⁾

당시 미군은 포로수용소 내 갈등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라면 “전쟁이 확대”되었다는 표현도 잘못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밴플리트 미 8군사령관은 1952년 6월, 포로사령부(Prisoner of War Command)의

10)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 the political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11)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252~259쪽; 김보영, 위의 책, 187~191쪽.

창설을 제안했다. 5월 12일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를 대신해 미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취임한 클라크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클라크는 단순히 포로사령부만 창설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군수참모인 에버를(George L. Eberle)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야전군인 전술 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 8군의 병참 작전과 지역 작전(territorial operations)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어떤 편제가 최선인지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지역 작전이란 포로 관리와 빨치산 토벌 등 후방에서 수행하는 작전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

클라크는 그의 회고록에서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민사원조 및 한국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KComZ의 창설을 이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밴플리트 장군이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후방 기지 사령부를 설치했다.”면서 “그로 하여금 포로 문제와 한국의 부흥을 위한 경제 문제까지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짐이었던 것이다. (중략) 이 보급 사령부는 포로수용소와 전방에의 보급품 수송 및 저장, 원호 그리고 재건 사업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후방 지원 사업을 모두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이렇듯 전쟁포로와 민사원조 문제는 병참 업무의 분리만큼 중요한 KComZ 창설의 배경이었다.¹³⁾

이에 따라 1952년 6월 9일, 극동군 군수참모, 미 8군, 주일병참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 JLC), 제2병참사령부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다.¹⁴⁾

12)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13) 마크 클라크, 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240~242쪽.

14)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 ① 주일병참사령부 사령관 혹은 극동군사령관 휘하에 전방관구(Advance Section), 병참관구(Communications Zone) 설치
- ② 미8군사령관 휘하에 한국군수사령부(Korean Logistical Command) 설치
- ③ 한국에 상급 본부(superior headquarters)와 지상전술군사령관, 한국 병참사령관, 민사 부사령관 설치
- ④ 극동군사령관 휘하에 본부(headquarters)와 기지관구(Base Section), 전방관구(Advance Section)로 구성된 병참관구(Communications Zone) 설치; 병참관구사령관에게 적절한 참모 제공

이 중 마지막 방안이 추천되었고 클라크는 KComZ를 1952년 7월 10일까지 극동군사령부 산하의 주요 사령부로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¹⁵⁾

1952년 7월 14일에는 부산에 보트너(Hayden L. Boatner) 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포로사령부가 제2병참사령부 산하에 설치되었는데, 제2병참사령부는 곧 KComZ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포로사령부도 자연스럽게 KComZ의 산하 부대가 되었다. KComZ의 편제는 다음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KComZ의 창설과 함께 미 8군이 담당하던 포로 관리 업무와 민사 업무, 병참 업무가 모두 KComZ로 귀속되고 미 8군은 오로지 전방에서 전투 임무만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결국 KComZ의 창설로 유엔군의 군사작전상 6·25전쟁의 전방과 후방은 명확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장의 분리’는 일반적인 통념처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방과 평화로운 후방을 구별하기

15) KcomZ 설치에 대해 백선엽은 “많은 사람들은 클라크 장군이 밴플리트 장군의 영향력을 줄이는 수단으로 KComZ를 설립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다.(Paik Sun Yup, *From Pusan to Panmunjom*(Washington D.C.: Potomac Books, 1992), p.205.) 위에서 살펴본 상황 전개는 이런 평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KComZ 창설로 인해 밴플리트의 부담은 분명 크게 경감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권한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방에서의 전쟁이 ‘진지전’으로 고착되면서 후방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치열한 ‘전장’으로 변해갔고 후방의 문제들은 정전협정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3.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편제와 임무

KComZ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편제와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KComZ는 극동군사령부의 예하 부대이자 미 8군의 측위부대로서 편성되었다. KComZ는 미 8군과는 독립된 단위이며 유엔군 및 극동군사령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된 것이다. 부대 창설과 함께 KComZ 사령관으로 헤렌(Thomas W. Herren) 소장이 임명되었다. 헤렌은 1946년 여름부터 24군단에서 하지 사령관의 참모장으로 근무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KComZ 사령관이 되기 전까지 미 8군의 민사담당 부사령관으로 밴플리트 중장의 휘하에 있던 인물이다.¹⁶⁾

미군정 운영을 경험하고 민사 업무에 밝은 헤렌이 KComZ 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KComZ의 기능과 역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병참관구(Communications Zone)에 걸맞게 병참업무를 전담한 것은 기본이었고 이밖에도 피난민과 전재민 관리, 이들의 이동 통제, 전후 복구 등 민사 업무 전반에 연관을 맺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KComZ는 임시 수도인 부산 지역 역시 관할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와 클라크 유엔사령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역시 KComZ 창설 이전에는 밴플리트 미 8군사령관이 수행하던 임무였으니 KComZ의 창설과

16) http://en.wikipedia.org/wiki/Thomas_W._Herren;

함께 밴플리트의 역할이 여러 면에서 축소된 것만은 분명했다.¹⁷⁾

헤렌은 KComZ 사령관에 임명되기 불과 1주일 전인 1952년 7월 3일,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 : CEB)의 유엔군측 대표로 지명되기도 했다.¹⁸⁾ 1952년 8월분 KComZ 지휘보고서에서도 그가 미 8군 민사담당 부사령관으로서의 업무에 “최고조에 달했을 때” KComZ 사령관이 되었으며 합동경제위원회의 유엔측 대표로 지명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민사원조 문제에 대한 그의 친화성은 KComZ 사령관으로서 실로 다행스럽고 매우 바람직한 특질”이었다고 평가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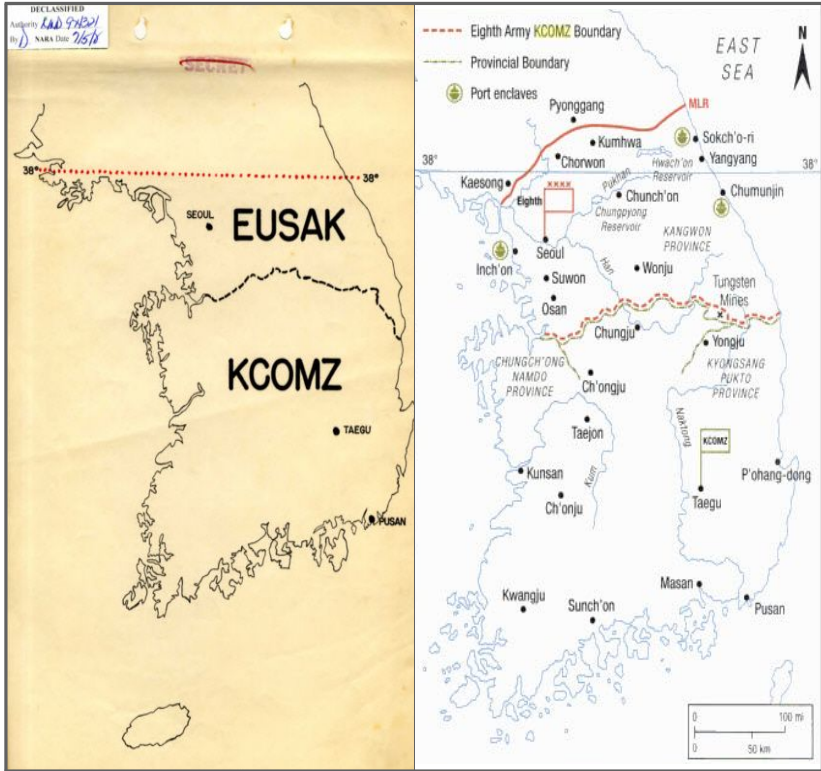
KComZ는 1952년 8월 1일 부대 편제가 편성되었고 8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밝힌 대로 KComZ의 작전구역은 대략 북위 37도선 이남의 후방지역으로 다음의 지도들에 나타난 바와 같다.

17) 1953년 2월 4일, 클라크는 한국정부의 서울 환도 의사에 대해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사업무의 관점에서 KComZ와 한국 정부의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8군은 이 지역에서 내가 KComZ의 책임이 되길 바랐던 민사, 정치, 경제문제로부터 8군을 제외하려는 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들 가능성들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FRUS』 1953, pp.729~731, 『자료대한민국사』에서 재인용) 클라크의 이러한 보고를 보면 그가 한국정부와의 협의 문제, 즉 ‘정치’ 문제에서 8군을 제외하고 이를 KComZ로 대체하려 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8)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2009, 173쪽.

19)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지도 1〉 주한 미 8군과 KComZ의 경계(A)²⁰⁾ 〈지도 2〉 주한 미 8군과 KComZ의 경계(B)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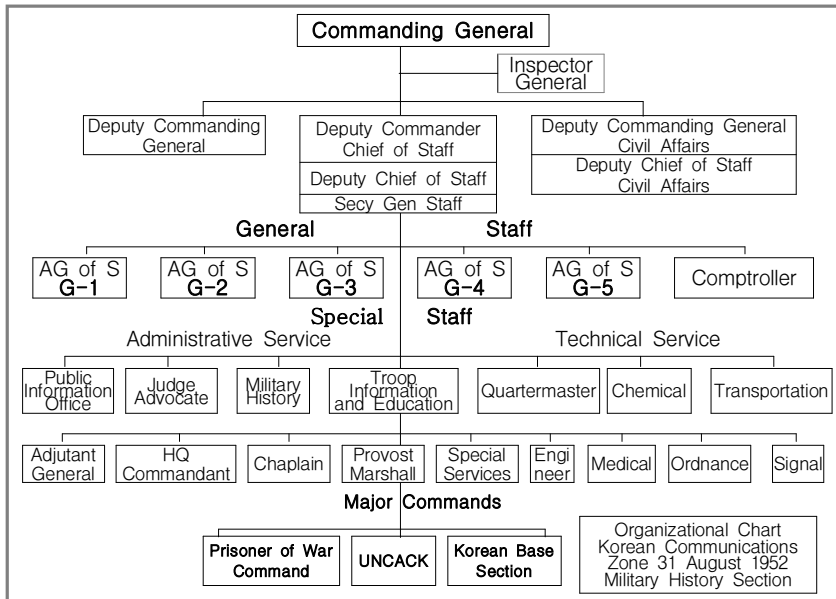
극동군사령부 지침에 따라 미 8군 휘하에서 병참 업무를 담당했던 제2병참사령부는 KComZ의 예하 사령부인 KBS(Korean Base Section, 한국병참기지관구) 휘하에서 기능하게 되었고 11월 1일에는 완전히 KBS에 흡수되었다. KComZ 지구 내의 모든 미 육군부대와 설비는, 예외적으로 미 8군 담당지역 내에 위치한 인천, 속초리, 주문진의 항구들과 함께 KComZ에 귀속되었다. KComZ의 주요 예하

20)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21) Donald W. Boose, Jr., *US Army Forces in the Korean War 1950-53(Battle Orders)*(Ospery Publishing, 2005), p.88.

부대는 한국병참기지원구(KBS)와 포로사령부(Prisoner of War Command), 그리고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rps Korea)였다. 이러한 KComZ의 편제는 다음의 표에 잘 나타나 있다.

〈표 1〉 KComZ의 편제표²²⁾



UNCACK은 1950년 11월부터 민사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KComZ가 창설되면서 미 8군에서 KComZ로 지휘 체계만 바뀐 것이 지 업무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포로 사령부는 KComZ 창설과 비슷한 시기에 창설되었으며 창설되자마자 KComZ 휘하에 편제되었다. KBS는 KComZ가 창설되면서 부산에 근거지를 둔 일종의 ‘기지사령부’로서 창설되었으며 미 8군 휘하의 제2병참사령부가 담당하던 병참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KComZ 창설과 함께

22)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UNCACK-민사, 포로사령부-포로 관리, KBS-병참지원이라는 KComZ의 주요 업무가 예하 부대의 편성과 함께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KComZ 부대 약사를 보면 KComZ의 임무는 크게 다음의 아홉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① 주한유엔군에 대한 병참과 행정 지원, ② 한국군에 대한 병참지원, ③ 책임지역 내에서의 이동(movement) 통제, ④ 한국 국립 철도(Korean National Railway)의 운영, ⑤ 책임 지역 내의 안전보장(Security), ⑥ 전쟁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의 수용, 관리, 통제, ⑦ 민사 관리와 민사 원조의 책임, ⑧ 한국정부, 유엔한국재건단(UNKRA), 주한미대사,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와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수행, ⑨ 한국 내 다양한 사령부들의 인원배치전환(replacement) 통제가 그것이다.²³⁾ 이는 극동군의 지침에 따라 7월 13일 헤렌이 초안을 잡았다고 하는 KComZ의 여덟 가지 임무에 마지막 아홉 번째 임무만을 추가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 중에서 ①~④, ⑨는 KComZ의 기본 업무인 병참 관련 임무이며, ⑤는 모든 군부대가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²⁴⁾ 따라서 눈여겨 볼 것은 ⑥, ⑦, ⑧에 해당하는 포로 관리, 민사 업무, 한국정부 및 유엔 기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KComZ의 활동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정리한 지휘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23) RG 550, Entry (A1)-1, Box 339, KComZ History.

24) 군부대가 담당지역 내의 안전보장(Security)을 책임지는 것은 전시에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러나 이 시기 KComZ의 담당지역 내에서 ‘안전보장’이란 기본적인 치안 활동 이외에도 ‘빨치산 토벌’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토벌’은 1952년 2~3월이 되면 대체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KComZ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1952년 8월 27일 현재 남한 내에는 여전히 1627명의 빨치산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정보 보고서의 빨치산 분포도에는 지리산, 회문산, 백운산, 덕유산, 대둔산 등 주요 거점별로 무장 및 비무장 인원수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있는데, 인사(Personnel), 정보(Intelligence), 작전(Operations), 군수(Logistics), 민사(Civil Affairs)의 전형적인 참모부서별 활동이 정리된 지휘보고서에서 특히 정보와 작전, 민사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정보참모부의 활동으로 주요한 것은 빨치산 활동에 대한 보고와 포로 활동에 대한 감시,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치’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작전참모부의 활동은 빨치산 활동과 포로 활동에 대한 대응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사참모부의 활동은 농업, 전력 및 연료, 광산, 수송과 통신, 산업과 상업, 재정, 물가, 임금, 구호물자, 피난민과 피난민 주거 문제, 의료 및 구호 의약품 문제, 공보와 교육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그 비중도 군수참모부의 비중만큼이나 컸다. 다음 장에서는 1952년 8월부터 1955년 6월까지의 활동 내용을 통해 이러한 KComZ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4.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활동과 해체

KComZ는 1952년 8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무렵까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활동 영역이 점차 줄어들면서 1954년 초부터 해체가 모색되었고 미국 회계연도 1955년(FY1955)에 맞추어 1954년 7월 1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부대 해체(Roll-up) 기간이 설정되어 1955년 6월 30일 최종 해체되었다.²⁵⁾

KComZ의 활동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1) 한국병참기지관구(KBS)가 주관한 병참지원 업무, 2)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25) RG 550, Entry (A1)-1, Box 95, Roll-up Opns.

가 주관한 민사 업무, 3) 포로사령부가 주관한 포로 관리 업무를 들 수 있다. KComZ의 참모부서들은 KComZ 산하의 이러한 주요사령부로부터 각각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였고, 이밖에도 4) 빨치산 토벌, 5) 한국 정부와의 관계 및 정치 관련 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의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각 활동의 핵심 내용과 시기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각각의 활동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가. 병참지원

병참지원 업무는 KComZ의 창설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KComZ의 기본 업무였다. 여기에는 탄약, 포탄, 의복 등 각종 군수품 통제에서 노획물과 레이션 관리, 철도, 도로, 해상, 공중 수송, 사상자 이송 등 다양한 병참 관련 업무가 망라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투 관련 군수품 수요가 급감하였고, 부대 해체를 준비하면서 물자와 기능의 이전을 중심으로 업무의 내용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참지원 업무가 KComZ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임에는 틀림없었다.²⁶⁾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병참지원 업무는 별도의 병참사령부(Logistical Command)가 수행하는 것이 교리로 받아들여졌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나는 이탈리아 전투에서도 같은 방법을 썼었다. 제5군에 의하여 점령된 나폴리 항구의 관리, 전방으로의 보급품 수송 등을 전담할 별개의 사령부를 창설하였던 것이다. 전방부대는 오직 독일군과의 전쟁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⁷⁾

26)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RG 554, KComZ Annual Historical Report, Fourth Quarter, 1953.

27) 마크 클라크, 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242쪽.

6·25전쟁기에는 1950년 8월 25일, 요코하마의 미 8군 후방본부(Rear Headquarters)가 주일병참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로 편성되어 주한미군과 일본 지역행정(area administration) 양쪽에 대한 병참지원을 맡으면서 사실상의 전장 병참관구사령부(a theater communications zone)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 전쟁 초기 미8군의 병참지원은 주일병참사령부가 도맡았던 것이다. 얼마 뒤인 1950년 9월 19일, 부산병참사령부가 해산되면서 제2병참사령부가 창설되었고, 같은 날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미 10군단의 병참지원을 위해 제3병참사령부가 편성됨으로써 유엔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담당하는 3개의 병참사령부 구성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1951년 1월, 임무를 마친 제3병참사령부가 부산으로 물러나 제2병참사령부의 예하부대로 편성되면서 일본과 한국에 각각 하나의 병참사령부가 남게 되었다. 1952년 8월 1일에는 제2병참사령부가 KComZ 산하의 한국병참기지원구(Korea Base Section)가 되었고, 같은 해 10월 1일, 주일병참사령부가 해산되어 재조직된 극동미육군(U.S. Army Forces, Far East)에 흡수되었다. 따라서 6·25전쟁기 병참지원 체계는 초창기 JCL-제2-제3 병참사령부 체제에서 1952년 가을 무렵 극동미육군-KComZ 체제로 변화한 셈이다.²⁸⁾

이렇듯 병참지원 업무는 KComZ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능이었고 KComZ가 한국병참관구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KComZ는 병참지원 업무 이외에도 민사 활동, 포로관리, 빨치산 토벌, 한국정부와의 관계 등 다양한 ‘후방’ 관련 업무들을 수행했다.

28) RG 550, Entry (A1)-1, Box 66, Logistical Problems and Solutions by EUSAK: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A Research Approach*(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7)

나. 민사 활동

KComZ의 민사 활동은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가 주관하였는데 UNCACK은 KComZ 창설 이전인 1950년 10월부터 고유의 민사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다. KComZ가 창설되면서 UNCACK은 KComZ의 예하 부대가 되었지만 조직의 책임과 작전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ComZ의 민사 활동은 농업, 전력 및 연료, 광업, 수송 및 통신, 어업, 공업, 공공 재정, 물가 및 가격과 임금, 구호물자, 공공복지, 피난민, 피난민 주거, 공중위생, 구호의료, 공보와 교육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²⁹⁾

1952년 5월 24일,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측의 견해를 조정할 자문기관으로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 CEB)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7월 3일, 첫 회의가 열렸을 때 한국대표는 재무부장관 백두진이었고 유엔군사령부 대표는 KComZ 사령관 헤렌이었다. 다음 달인 8월 헤렌은 해군소장 핸론(B. Hall Hanlon)에게 합동경제위원회 유엔군사령부 대표 지위를 넘겼고, 이후에는 KComZ 민사 부사령관이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합동경제위원회 산하에는 총수요(overall requirement), 구호와 원조 물자, 재정, 외환을 다루는 분과위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민사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따라 KComZ의 민사 활동에는 한동안 합동경제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³⁰⁾

이밖에도 환율문제, 통화개혁, 유엔군 자금조달 등 경제영역과 관련된 문제들도 민사영역으로 분류하여 취급하였다. 이런 부분들을

29)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김학재,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60쪽.

30)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김학재,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 해제」,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299~300쪽.

고려하면 KComZ의 민사 활동은 UNCACK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했다고 할 수 있다.³¹⁾

다. 포로 관리

KComZ의 포로 관리 업무는 KComZ 산하 기관으로서 1952년 7월 14일 부산에 창설된 포로사령부가 주관하였다. 포로사령부 사령관은 보트너(Hayden L. Boatner) 준장으로, 돛드 수용소장 피랍사건 이후 돛드와 콜슨 준장의 뒤를 이어 거제도포로수용소장에 새로 임명된 인물이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포로들이 휴전회담을 무산시키고자 한다고 보았고, 보트너에게 “거제도에 있는 반란 포로들을 장악하고 통제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보트너는 ‘유혈극’의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클라크는 “귀하가 해야 할 바를 하라. 내가 뒷받침하겠다.”고 밀어붙였다. 결국 보트너는 각 단위 수용소에 매일 공개적인 보안검색을 실시했고 수용소 측과 포로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1952년 6월 10일 폭동은 보트너 수용소장이 10일 06시까지 포로들에게 제76포로수용소를 비우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되었다. 포로들은 터널을 파고 창을 만들어 저항했지만 미군은 충격탄과 최루탄, 화염방사기를 사용하였고 제187연대 병력과 탱크 6대를 동원하여 2시간 30분 만에 진압을 완료하였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의 결과 포로 40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부상을 당했다. 미군은 1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 포로들은 여러 곳에 더 작은 단위로 분산 수용되었고 포로수용소의 통제 정책은 강화되었다.³²⁾

포로사령부의 창설과 보트너의 사령관 임명은 이렇게 포로 문제가

31) RG 554, KComZ Command Report, December 1952; RG 554, KComZ Command Report, March 1953.

32)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263~269쪽; 김준봉, 『한국전쟁의 진실』, 이담북스, 2010, 299쪽.

폭발하여 정점을 찍은 뒤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KComZ 산하 포로사령부가 포로 관리 과정을 책임진 이후에도 포로 문제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였다. 1952년 12월의 봉암도 사건, 1953년 3월의 용초도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봉암도 사건에서는 진압 과정에서 기관총이 등장하였고 85명의 포로가 총격으로 사망하였다.³³⁾

그러나 포로 관리 문제에 관한 최대 사건은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에게 직접 명령하여 이루어진 6·18반공포로 석방이었다. 반공포로 석방으로 2만 6천여 명의 포로들이 탈출에 성공하였고, 이는 유엔군의 포로사령부 창설과 통제 정책 강화를 무색하게 하면서 KComZ뿐만 아니라 유엔군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탈출한 반공포로들의 한국군 강제 입대와 세뇌 공작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포로 문제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포로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KComZ의 포로 관리 임무도 종결되었다.³⁴⁾

라. 빨치산 토벌

빨치산 토벌은 KComZ의 임무 중 “책임지역 내의 안전보장 (Security)”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미 1951년 11월 25일 전주에 백야전사령부(이하 백야사)가 설치되면서 같은 해 12월 2일부터 1952년 1월 4일까지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주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서남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백야사의 소탕작전으로 큰

33) RG 554, KComZ Command Report, December 1952; RG 554, KComZ Command Report, March 1953;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299~306쪽.

34) RG 554, KComZ Command Report, June 1953; RG 554, KComZ Command Report, July 1953; RG 554, KComZ Command Report, September 1953.

타격을 입은 서남지구 빨치산은 게릴라 활동에 유리한 산악지역으로 재잠입을 시도했는데, 지리산, 백운산, 회문산, 백아산, 덕유산, 운장산지구 등이었다. 이에 따라 백야사는 1952년 1월 4일부터 제3기 작전에 돌입하여 공비 사살 1,867명, 포로 1,155명의 전과를 올렸다. 1952년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제4기 작전은 지리산, 백아산, 조계산, 회문산, 덕유산 일대를 재수색하여 잔존 빨치산을 일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국 총 4차례의 ‘쥐잡기작전’에 의해 남부군을 비롯한 빨치산 주력이 대부분 섬멸되었고 사살 5,009명, 생포 3,968명의 전과를 올렸다.³⁵⁾

그러나 토벌대의 포위망을 탈출한 일부 빨치산은 후방 지역 곳곳에 분산 은거하였다. 1952년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수행된 제1사단의 공비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1952년 8월 27일 현재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1,629명의 빨치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ComZ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관할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경비사령부(Security Command)를 설치하여 잔여 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각 지역별 인원수가 매우 구체적이고 무장한 인원과 무장하지 않은 인원까지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빨치산 활동에 대한 매우 세밀한 정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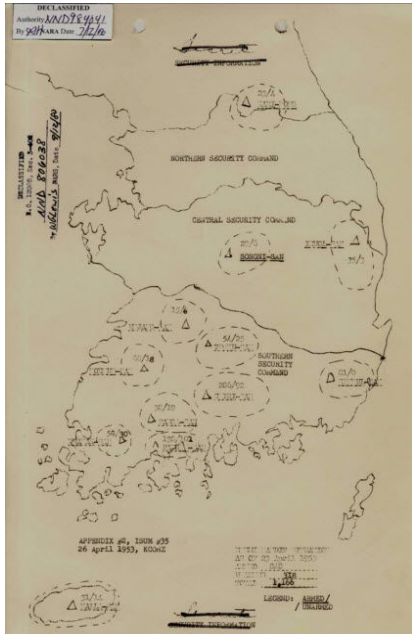
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2012, 251~270쪽.

36)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지도 3〉 빨치산 상황도(1952.8.)



〈지도 4〉 빨치산 상황도(1953.4.)



그러나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53년 4월 26일에도 잔존 빨치산의 수는 1,166명으로 여전히 1,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빨치산 규모는 체제의 위협이 된다거나 휴전회담을 방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KComZ 사령부와 한국 정부에게는 지속적인 골칫거리가 되었다. 빨치산 토벌작전에 대한 보고는 1953년 4/4분기까지도 지속되어 정전협정 이후에도 적어도 6개월 이상 후방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⁷⁾

37) RG 554, KComZ Command Report, April 1953; RG 554, KComZ Annual Historical Report, Fourth Quarter 1953.

마. 한국정부와의 관계 및 정치 관련 활동

KComZ의 활동 중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KComZ의 관할구역 내에 부산 피난 정부가 존재하였고, KComZ가 창설되면서 “한국정부, 유엔한국재건단(UNKRA), 주한미대사,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와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수행”이 KComZ의 임무 중 하나로 부여되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1952년 5월의 돛드 수용소장 피랍사건과 뒤이은 포로수용소 내의 유혈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 KComZ의 창설 직전에 벌어졌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었다.

제헌헌법이 규정한 간선제 하에서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통령이 이승만은 5월 25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12명을 구속하였다. 직선제 개헌을 위해 국회해산을 강행하려는 시도였다. 부통령 김성수가 사임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이승만은 1952년 6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정체로 발전해가는 과정시기에 있어서 다소간 정치파동이 있는 것은 … 민주정체의 발전되는 경험으로 간주할 것이오 중대한 우려되는 것도 없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³⁸⁾ 결국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도하여 정부안과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였고, 7월 4일 기립투표방식으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의 계엄령 선포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 작전지휘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고, 이는 잘 알려져 있듯이 유엔군이 이승만 제거를 모색하는 상비계획(Plan Ever-ready) 작성으로 발전하였다.³⁹⁾ 따라서 클라크가 이승만을 제어하고자 했다면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보다는 KComZ 사령관 헤렌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유리

38) 『경향신문』 1952.6.6.

39) 홍석률, 「집중분석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역사비평 28』, 역사비평사, 1994, 138~169쪽.

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밴플리트는 한국군 증강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 이승만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다. KComZ 창설 이후 KComZ의 관할구역 내에 임시수도 부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KComZ의 월간 지휘보고서나 분기별 지휘보고서 등에는 헤렌 사령관이 이승만이나 자유당 인사 등과 직접 접촉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회 내의 정치적 분파들에 대한 보고나 한일 관계의 문제, 한국군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헤렌은 1953년 3월, 극동군사령관에게 “보통은 KComZ 사령부와 한국 정부 간에 정치적 연락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사관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⁴⁰⁾ 따라서 KComZ의 창설과 활동이 한국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자료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바. KComZ의 해체(1954.7.1.~1955.6.30.)

1954년 6월 3일자 극동군사령부 병참 조정에 관한 육군부 계획(DA plan for logistical adjustment in FECOM)에 따라 KComZ의 철수(Roll-up)가 결정되었다. 이후 병참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KComZ가 담당해 왔던 임무들을 주한미8군(EUSAK)과 한국군에 이관하는 문제들이 KComZ 참모부서에서 논의되고 계획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후 1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르면 KComZ의 역할은 전쟁 중인 1952~1953년과 달리 병참지원업무를 중심으로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포로 송환이 완료되었고, 빨치산 토벌도 대체로 마무리되었으며, 피난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서울로 환도하였다.

40) RG 554, KComZ Command Report, March 1953.

KComZ의 민사 활동도 1953년 7월 1일부로 유엔한국민사처(UNCACK)가 한국민사처(KCACK)로 전환되면서 전후 부흥계획의 맥락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KComZ 철수(Roll-up) 작전은 기본적으로 병참 업무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재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① 유엔군·미군 전투부대 상당부분의 한국에서 철수, ② 서울-인천 지역을 바탕으로 자립형 잔류부대(self-supporting residual force)의 구성, ③ 한미상호방위원조계획(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 MDAP) 하에서 한국군 자립형 병참 시스템의 발전, ④ 중요 보급 물자의 미군 보급 시스템(supply system)으로의 반환, ⑤ 한국에서의 초과 물자 및 장비의 철거 및 처리, ⑥ KComZ의 단계적 철수로 구성되었다.⁴¹⁾

이에 따라 한국 육군은 1954년 10월 31일, 한국군 전군에 대한 병참 지원과 후방 경비임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제2군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제2군사령부 창설 이후 KComZ는 제2군사령부 산하 지원부대(service type units)들의 지휘관과 참모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 1954년 11월 15일에 시작되어 1955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KComZ가 실시한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은 한국군 제2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모두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KComZ는 이러한 프로그램 수행 이후 한국군 병참 능력을 평가하면서 “단계적 발전을 보였으나 미국 표준(American standards)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⁴²⁾

41) NARA, RG 550 Entry (A1)-1,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Files, Box 95, Report of KComZ Roll-up Operations, pp.1~8.

42) NARA, RG 550 Entry (A1)-1,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Files, Box 95, Report of KComZ Roll-up Operations, pp.20~22.

이밖에도 KComZ는 1955년 3월 31일까지 유엔군·미군에 대한 병참 지원 기능을 미 8군 전방사령부(Eighth Army (Forward))에 이관하였고, 극동군 군수참모부(FEC J-4 Section)에서 파견한 경제조정관실 군사고문에게 한국에서 미군이 운용했던 물자와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 지원을 위한 대외활동본부(FOA) 원조 7억 달러 중 미군으로부터 물자와 장비를 구매할 목적으로 책정된 4,300만 달러의 집행 과정에서 한국측 책임자와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1955년 6월 30일, 이러한 다양한 병참 관련 업무의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 뒤 KComZ는 결국 해체되었다.

5. 결론

1952년 7월 창설된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는 6·25전쟁기 후반에 이르러 적어도 군사적 측면에서 전방과 후방이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었다. KComZ는 남한 면적의 약 2/3에 해당하는 후방지역을 담당하며 미 8군이 담당하던 병참지원 업무를 대신해서 미 8군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창설되었던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기 처음 등장한 연합군의 병참관구(communications zone) 개념이 한반도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2년 7월 상황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방과 평화로운 후방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포로 문제로 인한 휴전회담의 교착, 포로수용소 문제, 부산정치파동, 여전히 계속되는 빨치산 활동과 각종 민사 문제 등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후방이 더욱

치열한 전장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KComZ는 단순히 병참지원 업무만을 담당했던 부대가 아니라 포로사령부,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한국병참기지원구(KBS)를 예하부대로 거느리며 병참과 포로관리, 민사 문제와 빨치산 토벌, 나아가서 한국정부와의 관계 등 ‘정치’ 영역에까지 관여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물론 KComZ에 부여된 이러한 임무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포로사령부가 창설되어 기능했음에도 KComZ는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속수무책이었고, 빨치산 토벌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전협정 체결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다. 결국 KComZ의 역할은 스탈린 사망 이후 휴전회담의 교착 상태가 해소되는 1953년 3월을 전후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3년 10월을 전후하여 급속도로 축소되어 1954년 7월부터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클라크는 “밴플리트 장군이 전투 이외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에서 KComZ를 창설했다고 회고하였다. 백선엽은 KComZ의 임무가 1954년 7월 창설되어 후방을 담당한 한국 육군 제2군사령부에 대부분 승계되었다고 회고하였다. 동아일보는 1955년 6월로 예정된 KComZ의 활동 종료가 한국군의 발전을 입증한다는 기사를 신기도 했다. 하지만 KComZ의 창설과 해체는 6·25전쟁기 ‘후방’이 또 하나의 전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유엔군과 한국정부는 모두 ‘정전(停戰)’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후방은 전쟁과 일상이 교차하는 6·25전쟁의 또 다른 주요 무대였다. 본고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KComZ의 활동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한다면 6·25전쟁기 ‘후방’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전쟁 이후 1950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43) 마크 클라크, 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한국후방관구사령부, 주한미8군, 극동군, 한국육군 제2군, 후방,
병참, 이승만, 마크 클라크, 밴플리트, 헤렌

<ABSTRACT>

Activation and Deactivation of Korean Communications Zone(KComZ) from 1952 to 1955

Lee, Dong-won

KComZ(Korean Communications Zone) was activated by the General Order No.65 of CINCFEC/CINCUNC, Mark W. Clark and had been charged with the 'rear area' of South Korea which had set the boundary line as approximately 37 degree northern latitude. In Korean peninsula, KComZ had lasted about for three years, from the activation on July 10th, 1952 to the deactivation on June 30th, 1955.

Ostensibly, KcomZ was activated for saving EUSAK(Eighth U.S. Army in Korea) from the burden of logistics supporting mission and conducting the mission independently. But KComZ had not only conducted the logistics supporting mission, but also performed the supervision of POWs, managed the civil assistance for Korea, and even involved in the relations of FEC/UNC and Korean government in Pusan. This means that the aspect and the meaning of Korean War was changed on 1952 and the meaning of 'rear area' was also changed simultaneously.

As the armistice agreement of Korean War was signed on July 26th, 1953, the role and the status of KComZ was changed again. Eventually,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Roll-up" plan, KComZ transferred the mission of logistics to the 2nd ROK Army and 8th U.S. Army (Forward). By researching the progress of KComZ from activation to deactivation,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rear area' of Korean War which FEC/UNC and US Army had in those days, also understand how the US intended to rearrange the military strength of UN forces and ROK forces in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of Korea War.

Key Words : KComZ, EUSAK, FEC, The 2nd ROK Army, 'Rear Area',
Logistics, Syngman Rhee, Mark W. Clark, James A. Van Fleet,
Thomas W. Herren